

성남시가 만나본 독립운동가 34인
 웹툰 제작 프로젝트 세 번째 이야기
 2021 VOL. 03





독립운동가 웹툰을 만나다

발행일 2021년 12월 22일

발행호수 통권 3호

발행처 (재)성남문화재단

발행인 노재천

편집인 정민혁

취재·기획·편집총괄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전화 031.783.8000

편집디자인·인쇄 디자인콤비

전화 031-607-8951

이 책에 수록된 사진과 글의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004 여는글

008 프로젝트 소개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란?
사업운영 구성과 진행
독립운동가 인물 선정 기준

014 프로젝트 성과

프로젝트 성과
대외성과
참여작가

022 작가와 자문위원 동향

작가와의 만남
생존 독립운동가 오혁옥 지사와
라고 웹툰 작가와의 만남
2021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 답사기
독립운동가의 불꽃 같은 삶에
날개를 단 '웹툰 프로젝트'

034 웹툰 디렉토리

108 프로젝트 추진 경과

114 유관기관 협력단체 리스트

116 후기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를
함께 만든 사람들
작가 축전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 3년간의 대장정
세대를 넘어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들의 희망은 계속될 것입니다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소중한 역사를 기록하고 미래 자산으로 남기기 위해 시작했던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가 2021년을 끝으로 3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19년 ‘위대한 시민의 역사’, 2020년 ‘위대한 시민의 문화’, 2021년 ‘위대한 시민의 평화’를 주제로 독립운동가 100인을 선정해 그들의 삶과 정신을 대중문화 콘텐츠인 웹툰으로 제작하고 연재하는 공공프로젝트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김구, 윤봉길, 안창호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뿐 아니라 11명의 지역 독립운동가와 29명의 여성운동가 등 역사의 수면 아래 감춰진 인물들을 집중 조명하는가 하면, 우리 영토주권의 상징 독도까지 총 100개의 웹툰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웹툰 작품들은 역사를 대중 문화예술 콘텐츠로 재창조한 것을 넘어, 미래를 살아갈 다음 세대가 역사를 기억하고 선조들의 정신과 발자취를 따르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앞으로도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이 스마트폰을 통해 학교와 가정에서 생명력을 지니고 교육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웹툰 프로젝트에서는 100여 명의 독립운동가를 만나봤지만, 역사 속에는 누군가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웃집 학생 등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온 수많은 무명의 영웅들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의 여정은 여기에서 끝이 나지만, 역사의 시간이 영원히 흐르는 것처럼 그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가야 할 우리의 의무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년간의 프로젝트 기획과 진행, 성공적인 연재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성남문화재단과 웹툰 추진단, 참여 작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자문위원단과 연재플랫폼 관계자분들, 그리고 웹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은수미

(재)성남문화재단 이사장 은수미

성남시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

3년의 대장정



성남시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대중 콘텐츠인 웹툰으로 풀어내는 일을 진행했다. 2019년 <위대한 시민의 역사>를 시작으로 2020년 <위대한 시민의 문화>, 2021년 <위대한 시민의 평화>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만화가, 웹툰 작가 124인과 각 분야의 자문위원 19인이 함께 참여하여 3년에 걸쳐 100인의 독립운동가를 새롭게 조명하였다.

우리 독립운동사는 영화, 연극, 뮤지컬, 드라마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수없이 조명되어왔지만, 선열의 고귀한 투쟁적 삶이 이렇듯 대규모의 웹툰으로 조명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성남시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은 여성독립운동가 비율을 높여 제작, 연재하고 있다.(2021년 8월 15

일 기준 독립유공자 포상 인원은 총 16,932명이며 여성은 540명에 불과하다.) 광복회는 일제 강점기 한반도 인구 2천만이었을 때 독립운동에 나선 사람을 약 300만 명(연인원)으로 추산한다. 한 집의 한 사람은 가족의 목숨까지 걸고 나선 참담한 역사이다. 이런 100년 전의 선열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제는 국가적 영웅의 모습에서 지극히 평범한 시민의 모습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려 드려야 할 때이다.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는 해마다 독립운동을 조명하는 의미에 대한 주제를 역사, 문화, 평화로 기치를 세우고 독립운동가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함께하고 있다. 해방 이전에 태어나신 이두호 선생님부터 20대 초년의 홍해림 작가까지 세대를 가로질러 원로, 중견, 신인작가 124인이 함께 한 가족이 되었다.

우리 독립운동사는 해방 이후 76년 동안 수많은 연구가와 학자들에 의해 조명되고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많은 선열의 발자취가 찾지 않는 유적으로 남거나 서고의 장식품이 되고 있어 그 안타까움이 배가되고 있다. 알다시피 참혹하고 어두운 역사일수록 시대 앞에 있는 그대로 정리해놓아야 다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은 국내 우수 플랫폼 연재와 동시에 국회의원회관, 만화영상진흥원 등 순회전시만 40여 차례 넘게 진행하였다. 2021년 정부합동평가 경기도 호국보훈우수사례에 선정되어 지자체 공공사업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분들을 조명하는데 일조할 수 있었다. 더불어 광복회는 독립운동가 웹툰 콘텐츠를 활용하여 2020년, 2021년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을 만화로 출판함과 동시에 참여작가들에게 독립운동가 선양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뜻으로 참여작가에게 ‘역사정의실천인상’을 수여하였다. 또한 독립운동가 만화도서가 좋은 판매 성과를 거두며 그 수익금으로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에게 복지지원이 이루어져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취지와 의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한편 독립운동가 웹툰 콘텐츠는 교육과 문화예술로도 보폭 확장을 타진하고 있다.

웹툰 종주국인 한국은 웹툰콘텐츠를 활용하여 영화와 드라마를 만든다든지 요즘 시대의 대중성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세계인들은 한류라 한다.

광복회 주관으로

2020년, 2021년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을 만화로 출판함과 동시에

참여작가들에게 독립운동가 선양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뜻으로 참여작가 ‘역사정의실천인상’을 수여하였다.

또한 독립운동가 만화도서가 좋은

판매 성과를 거두며 그 수익금으로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에게 복지지원이

이루어져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의

취지와 의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한편 독립운동가 웹툰 콘텐츠는

교육과 문화예술로도 보폭 확장을

타진하고 있다.

이제 남과 북 8천만 겨레와 해외 750만 동포들이 세계인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민정신을 더욱 목청껏 노래해야 할 때이다. 이때 독립운동가 웹툰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시민과의 소통창구로써 그 역할을 다하리라 믿는다. 그동안 선열의 삶을 찾는 일에 고귀한 품을 내어주신 성남시민, 은수미 시장님, 성남문화재단, 작품연재 공간을 열어준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웹툰, ebs툰, 만화책 출판을 맡아준 광복회와 함께해준 많은 행사 업체들, 길을 안내해준 여러 선후배 동료들과 무엇보다 추진단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평등, 평화, 화해의 등불을 들고 마지막 숨까지 가고 싶다.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 단장 이도현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란?

본 프로젝트는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점으로, 독립운동가의 삶과 정신을 뉴미디어 콘텐츠인 웹툰으로 제작하여 전국민에게 보급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3년에 걸쳐 100인의 독립운동가와 100인의 대표 만화가가 함께 <100인의 독립운동가 웹툰>을 제작하는 대규모 웹툰 프로젝트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각각 33인, 33인, 34인(독도 1포함)을 합하여 총 100인의 독립운동가를 웹툰으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매해 '위대한 시민의 역사', '위대한 시민의 문화', '위대한 시민의 평화'라는 주제로 올리는 '평화'라는 키워드로 항일독립운동의 의미를 전달한다. 이를 통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어린이, 청소년의 교육적 효과를 증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ICT 기업 인프라와 연계하고 전국 문화예술 일자리 모델과 양질의 공공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기획되었다.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는 웹툰을 통해 우리 독립운동가분들을 조명하고 발굴하여, 시민들이 딱딱한 위인전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우리 이웃처럼 독립운동가분들의 삶을 접착하고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외된 여성 독립운동가, 외국인 독립운동가, 문화예술 방면으로 활동한 독립운동가, 서훈을 추진 중인 독립운동가분들을 선정 비율을 높여서 조명하였다.

알다시피, 웹툰은 예술의 한 장르이자 다른 예술의 원소스 멀티유즈(OSMU)가 되는 원작 소재로, 일상성(공감성)·공유성(네트워크성)·상호작용성을 특징으로 하여 작가(작품)와 독자가 인터넷을 통해 연결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매체이다.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는 이러한 웹툰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역사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주제와 소재 그리고 시각을 투영하여 독립운동가의 삶과 정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독자들과 자연스럽고 친밀한 소통의 방식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2019

위대한 시민의 역사

독립, 저항정신의 역사

돌아보는 100년 나아갈 100년

2020

위대한 시민의 문화

독립정신과 문화의 현장

작가와 시민의 문화예술 생태계조성

2021

위대한 시민의 평화

평화와 공존의 미래

민족정기 회복 독립정신 계승

사업운영 구성과 진행

추진단 구성

2019년 성남시의 지원을 만나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가 탄생하게 되었다.

성남시는 예산과 홍보,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성남문화재단과 추진단이 협력체로 구성되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더불어 전문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운동가 선정을 비롯 역사 고증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국가보훈처, 광복회를 비롯한 각 기념사업회와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한 협력을 구축했다. 이렇게 구성된 추진단과 의미를 함께 공유하는 협력들로, 3년에 걸쳐 100편의 작품을 글 작가를 포함 총 124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작품의 공적 가치를 인정하고 협력해 준 플랫폼 기업의 협찬으로 시민들께 무료로 100편의 작품을 연재하게 되었다.

예산·홍보, 행정지원

성남시_예산·홍보, 행정지원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유관기관 협력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광복회
국가보훈처



사업추진

성남문화재단 사업주관
전문추진단구성(9인)



후원협찬

공사·민간기업
온라인연재
후원협찬



전문자문단

전문자문위원회
독립운동가 선정,
역사고증



웹툰제작

참여작가 124여명
(2021년 기준)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제작



전문자문위원회

전문자문위원회는 4개 전문분야로 구분하여 역사고증, 스토리 자문, 콘텐츠자문, OSMU로 분류하였다. 각 분야 인원은 3~4명으로 구성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역사고증, 스토리, 콘텐츠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작품에 반영하였고, 창작된 작품 콘텐츠를 활용할 방안에 대해 자문을 했다. 한편 독립운동사에 관심 있는 교사 자문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해 교육콘텐츠로써의 '독립운동가 웹툰'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성남 관내 학교와 인적, 홍보 네트워크를 활용 교류하며, 독립운동가 웹툰을 알리고, 교육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였다.

자문위원회 운영의 목적

자문위원회는 작가들의 작품 진작을 위하여 역사고증, 스토리 콘텐츠 등 작업에 요구되는 자료와 논문, 학문적 토대 등을 자문하고 지원함을 목표로 운영됩니다.

역사고증

역사학자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하여 지속적인 역사적 사실과 고증, 자료와 논문, 기타 자료를 담당



스토리자문

현대문학 평론가와 신문사 논설위원을 초빙하여 전문적인 스토리 전개 등 검수를 담당



사업추진단

중견이상 웹툰 작가와 다양한 만화관련 기업인 교수를 초빙하여 콘텐츠 전반에 걸친 자문을 담당



OSMU

영상, 디자인, 타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다양한 콘텐츠 확산의 계기를 마련



지난 3년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주신 분들

| | |
|--------|--|
| 역사고증 | 홍영기 순천대학교 명예교수, 김명섭 단국대학교 연구교수, 정철훈 경희사이버대학교 초빙교수 이윤옥 한일문화어울림연구 소장, 윤종준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상임위원,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 |
| 스토리 감수 | 정현기 문학평론가, 광병찬 전)한겨레신문 대기자, 박인하 서울웹툰아카데미 이사장 |
| 콘텐츠 | 이두호 만화가, 이재식 씨언씨레볼루션(주) 대표이사, 최정규 디지커처 대표 |
| OSMU | 박보경 서울애니메이션센터장, 윤순환 굿프로덕션(주) 대표이사, 박미경 씨컬처 대표 김동범 한국영상대학교 만화콘텐츠과 전임교수, 강태진 코니스트 대표 |
| 교육(교사) | 강은선 한솔고등학교, 권은재 풍생고등학교, 김주운 판교초등학교, 장아영 성남은행초등학교, 전병도 성일고등학교 |

독립운동가 인물 선정 기준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의 독립운동가 인물 선정 기준은 고정된 분류체계가 아니다. 다만 프로젝트 취지와 공공성을 대기준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기준을 세웠다.

먼저 독립운동가분들의 주요 역할과 주요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프로젝트에서 작품화, 콘텐츠화 가능성을 중점으로 분류하였다.

오른쪽과 아래를 참조하면 100인의 독립운동가 계열 분류가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며 작품화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서훈된 독립운동가를 중심으로 기록자료를 검토해 성별, 지역별, 외국인 독립운동가를 균형감 있게 분류한 후, 자문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또한 미서훈 독립운동가 중 발양이 필요하며 서훈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탐색해 추가로 선정하게 되었다.

| 여성독립운동가

현재 서훈된 16,000여명의 독립운동가 중 여성독립운동가는 526명으로 약 3% 비율이나 웹툰추진단에서 작품화한 인물은 100인 중 29명으로 약 30%에 도달함

| 지역 독립운동가

성남시(옛지명 광주군 포함) 일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중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에서 조명한 인물은 약 11명으로 가능한 성남 지역작가와 매칭하여 독립운동가 인물을 조명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미서훈

전형필, 헌계옥, 나혜석, 김염, 이도영, 이시중, 김원봉 등 7명의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조명하고 있으며, 이중 이시중 지사는 추진단에서 서훈 추진 중임

서훈자

서훈자(독립유공자포상 2021년 현재 보존처 포상업무 현황)
16,685명 중에서 매해 해당 독립운동가를 선정



균형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계열별, 성별, 외국인, 지역별 독립운동가를 균형감 있게 선정



자료

논문, 기록, 기사, 회고록 등이 풍부한 독립운동가를 선정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거쳐 고증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콘텐츠화

인물의 생애가 웹툰콘텐츠로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의 판단 후 선정



서훈가능성

발굴의 취지로 서훈이 유력한 약간명의 독립운동가를 선정



인물 선정 분류표

인물 선정은 독립운동가의 활동영역에 따라 중복될 수도 있으며, 특정하여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편의상 독립운동가들의 주요 역할과 주요 활동 지역을 큰 줄기로 분류하게 되었다. (하단 분류표 참조)

| | | |
|--------|--|-----|
| 임시정부 | 1차 권기옥, 김구, 김마리아, 정정화, 조소앙, 최재형 2차 김규식, 박은식, 안창호, 여운형, 연미당 3차 김성숙, 노백린, 신익희, 이동녕, 이미륵 | 16명 |
| 문화 예술 | 1차 나운규 2차 김영랑, 방정환, 전형필, 정세권, 최현배 3차 김염, 나혜석, 남궁억, 윤동주 | 10명 |
| 계몽 | 1차 신채호 2차 이위중 3차 최용신 | 3명 |
| 언론 | 2차 호머 헐버트 3차 베델, 이도영 | 3명 |
| 3.1 운동 | 1차 한백봉 2차 김항화 3차 유관순, 한용운, 박자혜, 동풍신, 이시종 | 7명 |
| 학생 | 3차 이선호, 장석천 | 2명 |
| 해외 항일 | 1차 김산, 김상옥, 김일렉산드라, 이태준, 허은 2차 안창남, 유일한, 한도신 3차 강혜원, 심영신, 이회영, 이회경, 임천택 | 13명 |
| 국내 항일 | 1차 김용환, 황애덕 2차 부춘화, 성기석, 전협, 후세 다쓰지 3차 강주룡, 박자혜, 이명균 | 9명 |
| 의열 투쟁 | 1차 가네코 후미코, 김익상, 박상진, 안경신, 이봉창, 윤봉길, 윤세주, 이명하, 이육사, 조명하 2차 강우규, 남자현, 백정기, 현계옥 3차 안중근, 조문기 | 16명 |
| 의병 | 1차 고광순, 남상목, 안규홍, 윤치장, 윤희순 2차 김하락 | 6명 |
| 무장투쟁 | 1차 김원봉, 홍범도 2차 김동삼, 김우전, 김좌진, 박희광, 오광심, 전월선, 지복영, 한형석 3차 박차정, 양세봉, 오희옥, 최이봉 | 14명 |
| 특별 주제 | 3차 독도 | 1명 |

2019년 1차년도 웹툰화(역사)

독립운동가
33명



2020년 2차년도 웹툰화(문화)

독립운동가
33명



2021년 3차년도 웹툰화(평화)

독립운동가 + 독도
33명 + 1



성남 지역 유관(거주·타계) 및 광주지역 활동 운동가

- 1차년도 남상목, 이명하, 윤치장, 한백봉, 황애덕
2차년도 김우전_성남 거주 타계, 김하락_남한산성 의병장,
전월선_성남 거주 및 타계
3차년도 신익희_광주군, 임천택_광주군, 이시중_돌마면

* '대한제국' 시기 행정구역상 경기도 광주는 현재 성남시가 포함되어 명확한 지역구분은 어려우나, 현 성남지역 행정구역 등에서 출생 또는 활동했던 대표 독립운동가 선정(성남문화원 윤종준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 선정)

여성독립운동가

- 1차년도 가네코 후미코, 권기옥, 김마리아, 김알렉산드라,
안경신, 윤희순, 정정화, 허은, 황애덕
2차년도 김향화, 남자현, 부춘화, 연미당, 오광심, 전월선,
지복영, 한도신, 현계옥
3차년도 강혜원, 강주룡, 나혜석, 동풍신, 박자혜, 박차정,
심영신, 오희옥, 유관순, 최용신, 최은희

외국인 독립운동가

- 1차년도 가네코 후미코, 김알렉산드라
2차년도 후세 다쓰지, 호머 헐버트
3차년도 베델

3차년도 특별주제 '독도'

21세기 독립운동 심장, 영토주권 상징
일제에 의해 멸종된 강치를 통해
우리 독립의 심장과 상징인 독도를 새롭게 알림

성남 지역 유관(거주·타계) 및 광주지역 활동 운동가

11명



여성독립운동가

29명



외국인 독립운동가

5명



특별주제 독도

1



프로젝트 성과

사업추진 성과 개요

지자체 최대 규모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제작
국내 대표 플랫폼 무료 온라인 보급
독립운동 관련 대표 협단체기관·후손과 연계 협업
민간기업 협업체계 구축과 후원 협찬 유치
웹툰 콘텐츠 OSMU(원소스멀티유즈) 성공 전략
성남시·시의회·성남문화재단 전사적 협력 지원
'호국보훈도시 성남'으로 자리매김

도비

117백만원



시비

5,948백만원



사업기간 2018. 11.~2021. 12.
사업예산 총 6,065백만원

작품 제작 현황

|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제작 | 33편 제작 완료 | 33편 제작 완료(총66편) | 34편 제작 완료(총100편) |
| 주제 | 위대한 시민의 역사 | 위대한 시민의 문화 | 위대한 시민의 평화 |
| 연재 | 다음웹툰 (2021.7. 서비스 종료) | EBS툰 (2021.8. 서비스 종료) |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페이툰 100편 종합연재 (2021.8.15. ~) |
| 특징 | 성남지역 독립운동가,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독립운동가 활약상 발굴 | 문화예술, 기업, 교육, 여성 등 독립운동가 발굴 | 한반도 평화 주제, 안중근, 유관순, 동풍신 및 여성, 해외, 성남 지역의 독립운동가 웹툰 제작 |
| 인물 | | | |

온라인 연재

국내 대표 ICT업체 협약을 통한 전국민 대상 무료연재

| 연도 | 연재처 | 연재(게재)기간 | 누적구독부 | 비고 |
|-------|-----------------|-----------------------|-------|--------------------------------|
| 2019년 | 다음웹툰 | 2019.8.4. ~ 2021.7.1 | 200만부 | 카카오웹툰으로 개편되어 연재종료 |
| 2020년 | EBS툰 | 2020.8.15.~ 2021.8.31 | 130만부 | 아이나무툰으로 개편되어 재연재(2021.10.~) |
| 2021년 |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웹툰 | 2021.8.15.~ 현재 | 180만부 | 웹툰 100편 통합연재 아이나무툰(32편 재연재) |

총 100편 독립운동가 웹툰 누적부 : 510만부(2021.1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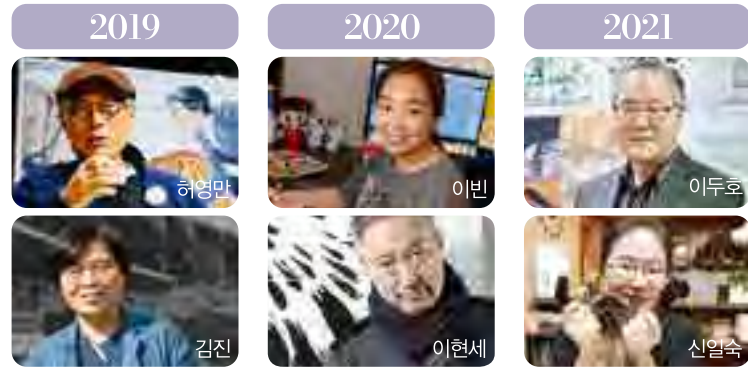


전국민이 쉽고,
친숙하게 독립운동가를
접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제작

-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독립운동가(서훈자 중 2.8%) 활약상 발굴 29인(제작비 중 29%)
- 지역 활동 독립운동가 발굴 및 전국민 홍보
성남(7인), 지역유관(4인)
- 역사, 문학, 웹툰 등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지원
정현기, 광병찬, 김명섭, 등 총 14인
독립운동가 선정, 특강, 작가개별자문, 콘텐츠평가 등 제작 지원
- 웹툰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을 위한 관내 교사자문단 운영 : 5인

국내대표 만화작가 참여

허영만, 김진, 이빈, 이현세, 이두호 신일숙 등 총 124인



행사 & 전시

독립운동가 웹툰 전시 및
기념 행사 40건 추진,
182만명 노출

2019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기념 독립운동가 웹툰 캐릭터 전시 및 기념공연(2019.3.1~8.): 성남시청
- 독립운동가 주제 청소년 웹툰 공모전(2019.5~8.): 초중고생 25명 수상
국가보훈처장(1), 경기도지사(2), 성남시장(3),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5)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5), 한국만화영상진흥원(9)
- 독립운동가 웹툰 캐릭터 순회전시(2019.3~6.)
- 연재기념 전시회(2019.8.7~8.18.): 국회의원회관, 성남시청

2020

- 웹툰 연재 기념 순회전시: 관내도서관, 시청로비, 청소년수련관 등
- 안중근 의사 111주년 기념행사(2020.10.23~26.): 효창공원
- 미술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展(여주미술관 려)

2021

- 3.1절 기념 독립운동가 웹툰 도서 북큐레이션(2021.2.22~3.31.)
- 호국보훈의달 기념 신분당선 호국보훈열차 & 웹툰 특별전시(2021.5~7.)
- 경기국제웹툰페어 참가(2021.10.7~10.)
- 연재기념 순회전시(2021.10~12.): 관내도서관, 시청로비

2021. 12. 기준

| 구분 | 2019 | 2020 | 2021 | 계 |
|------|--------|--------|---------|---------|
| 행사건수 | 22 | 9 | 9 | 40 |
| 참여 | 약 40만명 | 약 11만명 | 약 131만명 | 약 182만명 |

웹툰 콘텐츠

OSMU(원소스멀티유즈)

활용

- 5G시대 독립운동가 웹툰 캐릭터 활용 증강현실(AR) 체험스팟 구현(2020. 6.25.)
독립운동가 3인(김구, 정정화, 남상목), 성남시청 로비 및 광장
- 광복회 협력 만화 출판

2019년 1차년도 웹툰 만화전집 출간(2020. 8. 4.)



1차 출판기념회



1차 만화도서

2020년 2차년도 웹툰 만화전집 출간(2021. 8. 11.)



2차 출판기념회



2차 만화도서

웹툰 홍보

• 홍보효과

2021. 12. 기준

| 구분 | 2019 | 2020 | 2021 | 계 |
|-----|---------|---------|--------|---------|
| 보도 | 829 | 371 | 202 | 1,402 |
| SNS | 119,671 | 505,703 | 88,053 | 713,427 |

• 영상(홍보) 제작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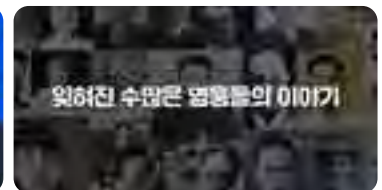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의 시작



2020 웹툰 속으로 들어간 팬수



2020 이현세, 이빈 작가 인터뷰



2021 성남문화재단 X 카카오페이지

지자체 유관기관 협력

-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 2021 지역 근현대사 교육자료(성남권역, 웹툰 부록 수록)
- 전국 최초 성남시·광복회 MOU체결 : 성남시장-광복회장(2020.6.25.)



- 정든지하보도 웹툰 캐릭터 전시(2021.7.~계속)



- 성남시 공시장 공공펜스 웹툰 캐릭터 부착 홍보



-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 협력 홍보(30여개 기관)



(재)한국방정환재단



대한적십자사



연세대학교 운동주기념관

민간기업 협업체계 구축과 후원 협찬 유치

- 국내 대표 ICT업체 MOU체결을 통한 연재



2019년 카카오페이지
(CIC다음웹툰컴퍼니)



2020년 EBS·아이나무툰
(EBS툰)



2021년 카카오펀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지·카카오웹툰)

- 자안그룹 사회공헌 캠페인 공동추진 협약(2020)
독립운동 콘텐츠 공동개발과 협력, 독립운동가 자선 지원(총 6천만원/광복회)
- 국내대표 인기 캐릭터 자이언트 펭수와 웹툰 협업 홍보(2020)



디지털 전시관 건립 검토 중 (스마트 도시과/스마트도시계획)

- 전시관내 VR전용룸 설치 독립운동가 웹툰 콘텐츠 체험존 구성

홍보용 굿즈 제작 활용



에코백 텀블러



마우스 장패드



티셔츠



수건



노트/스티커 세트



탁상형 달력



마스크



걸이형 달력

대외성과

지난 3년간의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당대 대중 예술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여 100인의 웹툰 작품 연재를 완수했다는 데 있다. 작가들은 말한다.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독립운동가 웹툰은 그릴 수 있다”고 100편의 독립운동가 웹툰 작품이 ‘독립운동이 무엇이고 독립운동가는 누구일까.’라는 물음에 일제강점기, 삶의 어떤 부분만 독립운동이라고 오롯이 발라낼 수 없겠지만, 그간의 고생이 대외적인 성과로 지난 3년간의 작가분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협력 인원들 모두의 피땀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지 않을까 한다. 그 성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2019 성남문화재단 |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감사패(한국만화영상진흥원) |
| 2020 성남시 | 2020년 제21회 보훈문화상 수상(국가보훈처) |
| 성남시장 | 독립운동역사대중화공로감사패(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단재 신채호상(광복회) |
| 성남문화재단 | 역사정의실천상(광복회) |
| 1차 참여작가 | 역사정의실천상(광복회) 41인 |
| 2021 경기도 우수사례 선정 | 정부합동평가 경기도 호국보훈우수사례 선정(2020년 실적) |
| 2차 참여작가 | 역사정의실천상(광복회) 42인 |



1.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 독립운동가 웹툰 제작으로 전국민 확산 계기
2. 코로나 19 상황에서 언택트 문화콘텐츠로서 전국민 제공

참여작가

2019

권가야, 권숫돌, 김광성, 김금숙, 김성희, 김수박, 김연승, 김은희, 김재성, 김재연, 김진, 김현민, 류량, 명량, 박건웅, 박명운, 박찬호, 백성민, 별님, 서씨, 손상민, 송동근, 신얼, 오자유, 유대수, 이규석, 이루다, 이민진, 이상훈, 이정현, 이필, 전세훈, 정기영, 정용연, 정윤, 조명원, 조석신, 차성진, 차현진, 천명기, 최인선, 허영만, 홍혜림, Nicky 44명

2020

강호면, 고태야, 긴유, 김기백, 김달남, 김용길, 김유정, 김준범, 김한조, 나병재, 南風, 노미영, 래시, 박찬섭, 배진화, 성주삼, 송진우, 우장순, 원혜진, 이빈, 이상훈, 이세경, 이슬, 이아영, 이해경, 이현세, 임소희, 장우혁, 정미진, 지강민, 최금락, 최승춘, 최윤열, 최해술, 최훈, 하마탱, 홍연식, 환쟁이, Alcor, KIRTY, LUCKY9, Q-Ha 4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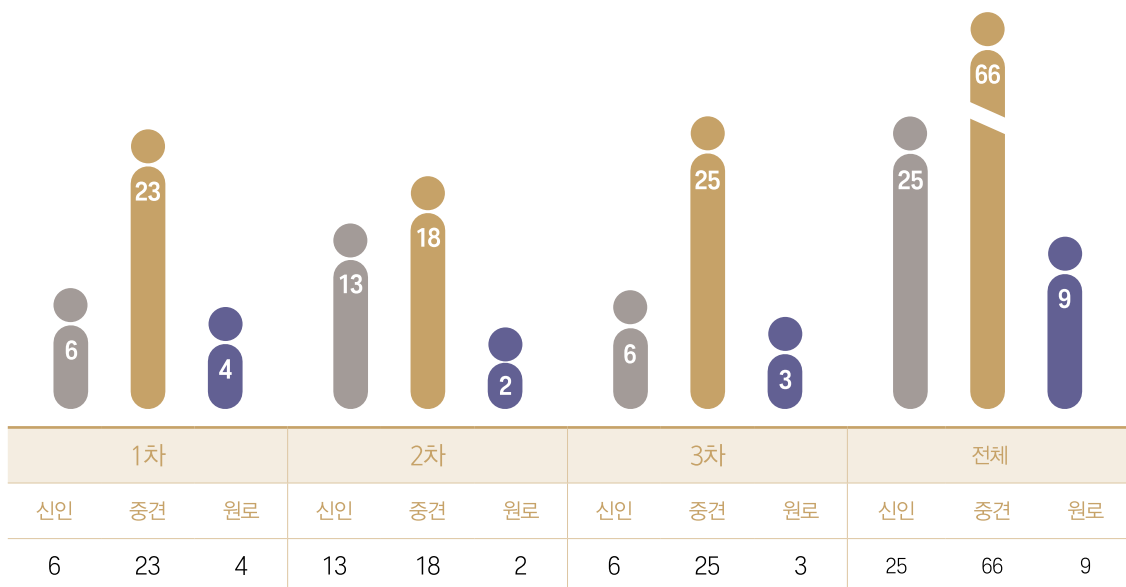
2021

고타, 구아진, 김경민, 김경일, 김보통, 김선영, 김소희, 도훈, 라코, 마영신, 매미, 몬, 무명, 문흥미, 바킹독, 박순찬, 백영욱, 서사야, 서정은, 솟뿔, 신일숙, 안세희, 안중현, 어숙일, 워커, 유승하, 유창창, 이두호, 이우영, 이은혜, 이은홍, 이희재, 임광묵, 장덕현, 장우룡, 정원, 정준규, 조은영, Nohdan 39명

* 중복 1인(스토리 작가)

작가 신인, 중견, 원로 비율

● 신인 ● 중견 ● 원로



* 원로-중견-신인의 분류는 데뷔년도를 기준으로 편성하였고, 원로, 중견, 신인 3대가 함께 작업하는 한국 전통가정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작가동향 작가와의 만남

2021 3차년도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작가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전체 작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작가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 10명 정도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참여작가 두 분의 인터뷰를 간략히 싣는다.

저는 '임꺽정'과 '머털도사'를 그린 이두호입니다



• 이두호 작가와의 인터뷰



작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나요?

이번에 제가 안중근 의사 웹툰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다시 한번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프로젝트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100인!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고, 처신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그리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러한 역사를 알아야 그러한 상황에 그분들이 어떻게 처신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몸소 간접 체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프로젝트가 독자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었으면 하시나요?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보면서 나를 반성할 수 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웹툰을 필히 보시라 권하고 싶고, 보시면 틀림없이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신일숙 작가와의 인터뷰 •

‘아르미안의 네딸들’을 그린 신일숙 작가입니다

이번에 어떤 독립운동가를 담당하여 그리셨나요?

저는 유관순 열사를 맡았구요. 유관순에 주력하기보다는 그 당시 학생운동을 한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유명한 유관순을 웹툰화하는 작업을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굉장히 자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자료가 많다 보니 헛된 자료도 있었고, 안 맞는 자료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유관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유관순이 있게 된 주변의 인물들을 이야기함으로써 3.1운동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유관순 열사는 그 당시에 ‘그냥 보통 학생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보통 학생도 이렇게 나라를 구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었기에 3.1운동은 정말로 나라 전체를 위한 대단한 운동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그리면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에게 3.1만세운동의 상징이자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가녀린 소녀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유관순, 그녀를 마지막까지 지탱해준 것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여기엔 두 작가분의 인터뷰 내용만 실리긴 했지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부분의 작가들이 느낀 공통점은 독립운동가에 대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제대로 독립운동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고, 스스로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라도 제대로 독립운동가분들을 알려야겠다는 다짐을 고백하고 있다.

생존 독립운동가 오희옥 지사와 라코 웹툰 작가와의 만남



성남문화재단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 추진단은 2021년 제3차 ‘위대한 시민의 평화’ 34인의 독립운동가 중 한 분으로 선정된 생존 독립운동가 오희옥 지사(吳姬玉, 1926년생)와 지사의 삶을 대중에게 소개할 웹툰 작가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오희옥 지사의 연세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작가와의 만남을 주선하기 이전부터 프로젝트 추진단은 작년부터 오희옥 지사의 아들 김흥태 씨와 어머니의 컨디션을 예의주시하며 접촉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지사님을 뵙는 기회를 한정시켰다. 그렇기에 지사님은 프로젝트 추진단을 만날 때, 평소보다 생기를 띄우시고 기뻐하셨다. 특히 독립운동가의 삶이 웹툰으로 작품화된다는 사실에 놀라워하셨고, 본인의 이야기가 작품화된다는 사실에 누구보다 기뻐하셨다. 그래서 흔쾌히 프로젝트의 성공을 빌어주시는 글도 떨리는 손으로 손수 써주셨다. 되돌아보니 독립(獨立)이라는 한자를 중국어 간체자로 써주실 때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현장이 바로 타국만리 중국이었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전교류를 통해 이분을 웹툰으로 작품화할 라코 작가와의 기약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해가 지나 4월말 쯤이 되어서야 날씨도 온화해지고 지사님의 건강 상태도 허락하는 기회가 생겼다.

지사님을 웹툰으로 그려낼 라코 작가는 여성 캐릭터의 감정선 묘사가 섬세한 작가로 알려져 있다. 작가는 오희옥 지사님을 만나기 전 여쭙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대단히 많았다고 한다. 작가는 오희옥 지사께 드릴 꽃다발과 함께 그분을 그린 웹툰 인물화를 액자에 곱게 포장하여 준비하였고, 그분께 선물을 드리는 순간이 지금도 떠오른다. 그 모습을 사진에 담아 보았다.

만남 이후 시간이 지나 라코 작가에게 소감을 물었을 때, 작품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분

도 처음부터 독립운동가가 아닌 소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고,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게 한 그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사님을 뵙는 그 순간 그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깊은 울림을 받았다고 한다. 투병 중이시기는 하지만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에서 오희옥 지사는 100인의 독립운동가분들 중 유일한 생존 지사로 그 삶의 굴곡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고, 독립운동의 산증인으로서의 울골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라코 작가는 지사님과의 만남으로 그분의 생애와 독립운동 활동이 대중에게 온전히 자연스럽게 오래도록 전하는 작품을 만드시고 싶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끝으로, 오희옥 지사는 자신의 삶이 독립운동가 웹툰으로 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를 응원하는 자필 문구를 추진단에게 보내주신 마음을 담아 그 문구를 사진으로 싣고자 한다. 지사님과 라코 작가의 만남은 지금 현재되고 있고 앞으로 발굴될 독립운동가분들의 작품이 한정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을 위한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오희옥 여사와 라코 작가의 첫만남



2021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 답사기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 추진단은 2021년 제3차, 34편 작품을 그릴 작가를 대상으로 독립운동가 관련 유적지를 탐방하여 그분들의 희생과 정신을 작품에 담을 수 있도록 답사를 기획했다. 현장답사는 인물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힘과 동시에 작품 완성도를 높이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기에 전체 답사를 대신해 소규모 답사로 나누어 몇 차례 진행하게 되었다. 야외 답사지 선정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국립서울현충원, 효창독립100년공원, 국립대전현충원 그리고 독도체험관 다섯 군대를 두고 작가들께 추천한 후 희망 답사 장소와 일정 등을 신청받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불안한 코로나19 상황과 개인일정 등으로 1인 개별 답사를 선호하는 작가들이 다수였기에, 소규모 답사는 결국 2회에 걸쳐 서무대문형무소역사관(4인)와 국립서울현충원(1인)을 방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어숙일 작가, 이희경 지사 묘 앞에서



목정하 인도법연구소 과장과 어숙일 작가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며

두 군데 답사지 일정 중 기억에 남는 여정은 부산에서 국립서울현충원 답사를 신청한 어숙일 작가의 답사기다. 어숙일 작가는 독립운동가이자 적십자 초대회장인 이희경 지사를 맡아 그리기로 한 작가이다. 지사에 관한 정보가 많이 남아있지 않기에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셔진 이희경 지사의 묘소라도 찾아가 보면 착상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답사 신청을 하셨다고 한다. 이러한 사연을 접한 프로젝트 추진단은 작가를 위해 자료수집을 도움 방법을 모색하였다. 먼저 원주 적십자 본부에 연락을 했다. 마침 이희경 지사를 연구하고 있는 목정하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과장과 연결이 되었고, 이렇게 오후 현충원 답사 계획에 더불어 오전에는 목정하 과장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빠듯한 일정을 잡게 되었다.

답사 당일, 원주 터미널에서 작가를 만나 대한적십자사로비에서 목정하 과장과 인터뷰를 하며 채록을 하였다. 이어 근처 식당으로 옮긴 식사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프로젝트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며 이희경 지사에 관한 자료가 부족해 처한 작업 난관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이를 모두 듣고 목정하 과장은 이희경 지사가 초대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운 실정에 대해

이야기를 전하며, 지난해에 이어 8월 말에 연구발표회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주었다. 식사 후 함께 연구소로 돌아와 자료를 제공해주었고, 어숙일 작가는 “답사 신청하기를 참 잘했다”며 기뻐했다. 어린 자녀를 두고 먼 거리를 이동할 생각에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원지 모를 기대감에 신청한 것이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은 것 같다”라고 전해 추진단은 보람을 느꼈다.

목정하 과장과 만남을 뒤로하고 국립서울현충원에 도착하니 추진단 이도현 단장과 김명섭 자문위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사를 나누고 이희경 지사의 묘소로 가는 도중 김명섭 자문위원은 국립서울현충원 곳곳의 역사를 설명해주었다. 이윽고 이희경 지사 묘소에 도착하자 묘비명을 자세히 살펴보던 어숙일 작가는 상석에 앉은 먼지를 손으로 훑치고 준비한 흰 국화를 꽃병에 꽂았다. 그리고는 모두 함께 묘소에 예를 갖추었다. 사진 촬영으로 기록을 남기고, 작가는 김명섭 자문위원과 이희경 지사를 비롯 작품에 관한 많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다. 기차 시간이 임박한 관계로 서울역까지 어숙일 작가를 배웅했다. 바쁘고 고단한 답사 여정이었지만, 자료가 너무 적어 그간 작품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고민하던 작가가 답사 후 지었던 미소를 떠올리면 추진단에게도 참 따뜻하고 보람찬 하루였다.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하며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는 5월의 어느 날 오후 2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감시탑 앞에 하나둘 모인 작가들과 코로나19 출입절차를 마치고 내부로 들어왔다. 형무소 설명과 자문을 해주시기로 한 이윤옥 자문위원은 먼저 도착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다. 우리들은 형무소 안의 싸늘한 기운을 느끼며 전시관, 옥사전시 그리고 야외전시 순으로 답사를 하기로 하였다,

한국 첫 만화를 그리신 이도영 선생을 맡은 박순찬 작가, 유림으로 든든한 독립운동 나무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이명균 지사를 그릴 백영옥 작가, 북쪽 마을의 유관순이라 불리는 동풍신 열사를 그릴 정원 작가, 지식인으로 사회적 편견과 맞선 나혜석 선생을 그릴 유승하 작가 그리고 이윤옥 자문위원은 발걸음을 옮기며 서로 간단히 소개를 마쳤다.

옥사전시에서는 당시 참혹했던 재소자들의 생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감시 시설과 도구 등을 확인하니 탈출이 불가능한 이 공간에서 참담했을 지사들이 떠올랐다. 열악함과 그 구조의 잔인함, 인권을 처참하게 뒤흔던 현장을 마주하니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좁디좁은 공간은 말할 것도 없고, 감시를 위해 흰히 보이게 만든 구조는 사생활 일체를 포박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치가 떨려왔다. 전시관 지하로 내려가 조사실 고문 도구와 육성 증언을 영상으로 듣는 순간, 직접 고문을 당하는 것과 같이 숨이 막혀왔다.

야외전시로 이동을 하면서는 이 고통을 벗어 날 수 있을까? 잠시 기대하였지만, 이곳에서 마주하게 된 사형장과 망루 앞에 멈춰 한동안 몸을 움직이지가 어려웠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이러한 수모와 고통을 어찌 견뎌내셨을까? 안타까움과 울분이, 우리가 왜 10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웹툰을 통해 독립운동가를 그려야만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이 되어 소용돌이쳤다. 유관순이 수형 당했던 옥사를 끝으로, 서대문형무소 답사를 마쳤다.

• 유승하 작가의 답사 후기 중에서 •

지하 고문실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고, 무엇보다 가장 귀퉁이에 남아있는 사형장은 아직도 그 울적한 기운에 근처에 가기 꺼려질 정도이다. 오죽하면 그 잘 자란다는 미루나무가 한 그루는 죽고 한 그루는 비실비실한 상태로 겨우 살아가는 정도일까, 이름조차 통곡의 미루나무, 사형수들이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그 나무를 붙잡고 마지막 길을 울면서 이승과 작별 인사를 하였다고 하니 온갖 억울함과 비통함이 나무에 전해져 있을 것이다.

마침 인혁당 생존자인 이창복 선생과 형명재단 이형락 선생의 따님 이단아(민주화운동 계승연대 이사장) 선생이 사형장 앞에서 인터뷰 중이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곱절로 마음이 울적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과 이후 민주화운동의 힘든 시절이 함께 이곳에서 이어졌다니…….

일제의 가혹한 탄압 수단이 후세 100년에 걸친 독립과 민주화 역사의 절절한 교육 현장으로 남아있는,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 추진단 사무국장 이재규

독립운동가의 불꽃 같은 삶에 날개를 단 ‘웹툰 프로젝트’

3년 전,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해는 유달리 전국적으로 기념 행사가 많았다. 더러는 의미 있는 행사도 있었지만 많은 행사들이 이벤트성으로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무엇을 기리고 누구를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도 제시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 100주년을 기념한다는 미명 아래 각종 행사의 막이 내렸다. 아쉬웠다. 그런 가운데 들려온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이 기획한 <독립운동가 기억 프로젝트: 100인의 독립운동가 웹툰> 소식은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 기쁜 소식이었다.

독립운동가의 일생을 웹툰으로 풀어낸다는 발상은 누가 한 것일까? 매우 신선했다. 사실, 독립운동가에 대해 좀 안다는 사람들도 개별적인 인물로 들어가면 거의 무지에 가까운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것은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서가 없어서도 아니고 서적류가 없어서도 아니다. 단지, 시대가 요구하는 ‘쉽고 간략히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의 문제라고 평소 생각해왔다. 그러하기에 독립운동가를 웹툰으로 소개한다는 사실에 들뜬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자문위원으로 함께 하면서 <100인의 독립운동가 웹툰>에 참여한 작가들의 뛰어난 역량에 놀랐다. 한 분 한 분의 일생을 간결하면서도 재미를 곁들인 작품으로 남겨야 하는 작업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코로나19’ 환경에서 작가들과 자문위원들이 수시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지만, 작가들은 자신이 맡은 독립운동가의 삶을 200%로 표현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했고 자문위원 역시 역사적 접근에 대한 오류가 없는가에 대한 최대한의 자문에 임했던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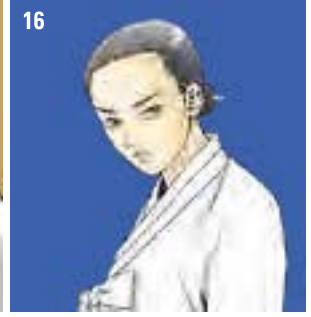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김구 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독립운동가를 비롯하여, 방정환, 이명하, 백정기, 전형필 등의 독립운동가들은 사실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다. 그런가 하면 여성의 경우, 유관순 열사 외에 임신한 몸으로 평남도청에 폭탄을 던진 안경신, 사이토 마코토, 조선 총독의 암살을 기도한 남자현, 해녀출신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든 부춘화, 여자광복군 오광심 등 역사의 조명을 그다지 받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29명 포함되어 있어 의미가 깊다.

특히 이번 웹툰 프로젝트는 해마다 ‘위대한 시민의 역사(2019)’, ‘위대한 시민의 문화(2020)’, ‘위대한 시민의 평화(2021)’라는 주제를 설정하여 100인의 독립운동가를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어두운 암흑시대에, 한줄기 빛으로 우리 곁에 남은 독립운동가의 삶이야말로 위대한 역사요, 문화요, 평화를 꿈꾸는 우리의 영원한 표상이기 때문이다.

아쉬운 것은, 올해 3년차로 <독립운동가 기억 프로젝트: 100인의 독립운동가 웹툰>을 마쳐야 한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200인, 300인...과 같이 긴 안목으로 겨레와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불꽃 같은 삶을 살아낸 독립운동가를 그려내는 작업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함께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해 지하에 계신 독립운동가들의 따스한 격려가 들려오는 듯하다.

자문위원 **이윤옥**





| | | | | | | | |
|------------|----------|--------|----------|--------|----------|--------|-----------|
| 01 가네코 후미코 | 이루다 | 09 김용환 | 이정현 | 18 윤봉길 | 이민진, 박찬호 | 27 조명하 | 조명원 |
| 02 고광순 | 김현민 | 10 김원봉 | 허영만 | 19 윤세주 | 이상훈, 서씨 | 28 조소앙 | 송동근 |
| 03 권기옥 | 손상민, 홍혜림 | 11 김익상 | 명랑, 신일 | 20 윤치장 | 정윤, 차현진 | 29 최재형 | 김연승 |
| 04 김구 | 백성민 | 12 나운규 | 전세훈 | 21 윤희순 | 권숯돌, 정용연 | 30 한백봉 | 이규석 |
| 05 김마리아 | 김성희 | 13 남상목 | 조석신, 김재연 | 22 이명하 | 정기영, 김재성 | 31 허은 | 차성진 |
| 06 김산 | 박건웅 | 14 박상진 | 박명운 | 23 이봉창 | 김수박 | 32 흥범도 | 김진 |
| 07 김상옥 | 김은희, 권가야 | 15 신체호 | 김광성 | 24 이육사 | 천명기 | 33 황애덕 | Nicky, 벌님 |
| 08 김알렉산드라 | 김금숙, 정철훈 | 16 안경신 | 류량 | 25 이태준 | 이필, 유대수 | | |
| | | 17 안규홍 | 오자유 | 26 정정화 | 최인선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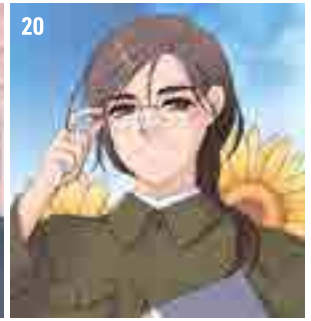
Independence activists

2019년

33인 독립운동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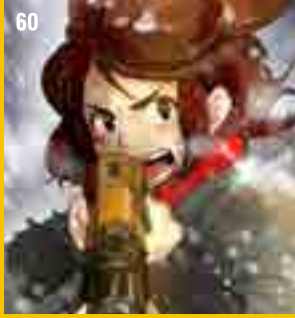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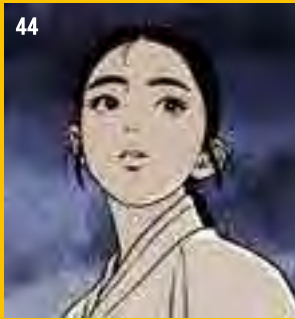
| | | | | | | | |
|--------|-----------|--------|--------|--------|-----------|-----------|----------|
| 01 강우규 | 성주삼 | 10 박은식 | 홍연식 | 19 연미당 | 김달님 | 28 최현배 | 장우혁 |
| 02 김규식 | 환쟁이 | 11 박희광 | LUCKY9 | 20 오광심 | 이아영 | 29 한도신 | 이해경 |
| 03 김동삼 | 최승춘, 송진우 | 12 방정환 | 이빈 | 21 유일한 | 최금락, 이세경 | 30 한형석 | 배진화, 김기백 |
| 04 김영랑 | 나병재 | 13 백정기 | 김유정 | 22 이위중 | KIRTY, 래시 | 31 현계옥 | 우장순, 원혜진 |
| 05 김우전 | 강호면 | 14 부춘화 | 임소희 | 23 전월선 | 정미진 | 32 호머 험버트 | 최해솔, 고태야 |
| 06 김좌진 | 하미탱, Q-Ha | 15 성기석 | 김용길 | 24 전협 | 김준범 | 33 후세 다쓰지 | 김한조 |
| 07 김하락 | 이상훈, 이현세 | 16 안창남 | 박찬섭 | 25 전형필 | 노미영 | | |
| 08 김향화 | Alcor | 17 안창호 | 지강민 | 26 정세권 | 최윤열 | | |
| 09 남자현 | 南風, 이슬 | 18 여운형 | 최훈 | 27 지복영 | 긴유 | | |



Independence activists

2020년

33인 독립운동가 이야기



| | | | | | | | |
|--------|---------|--------|-------------|--------|----------|---------|----------|
| 40 독도 | 서정은 | 58 박자혜 | 김소희 | 76 윤동주 | 구아진 | 94 임천택 | 문 |
| 42 강주룡 | 서사야 | 60 박차정 | 김선영 | 78 이도영 | 박순찬 | 96 장석천 | 이희재 |
| 44 강혜원 | 조은영 | 62 베넬 | 김경일 | 80 이동녕 | 안중현, 안세희 | 98 조문기 | 김경민 |
| 46 김성숙 | 매미, 임광묵 | 64 신익희 | 장덕현 | 82 이명균 | 백영옥 | 100 최은희 | 마영신, 유창창 |
| 48 김염 | 이은혜 | 66 심영신 | 문흥미 | 84 이선호 | 워커 | 102 최용신 | 이우영 |
| 50 나혜석 | 유승하 | 68 안중근 | 이은홍, 이두호 | 86 이시종 | 바킹독 | 104 최이봉 | 숯불 |
| 52 남궁억 | 정준규 | 70 양세봉 | 무명 | 88 이의경 | 도훈 | 106 한용운 | 김보통 |
| 54 노백린 | 장우룡 | 72 오희옥 | 라코 | 90 이회영 | 고타 | | |
| 56 동풍신 | 정원 | 74 유관순 | Nohdan, 신일숙 | 92 이희경 | 어숙일 | | |

*(숫자) Page



Independence activists

웹툰 디렉토리

34인 독립운동가 이야기

나의 독도



독도

21세기 독립운동의 심장

작가

글·그림 서정은

주요작품 1994년 <그라운드 파이터>
<코믹 메이플 스토리 어드벤처>
<코믹 메이플스토리>
<수학도둑>
<쿠키런 어드벤처> 등 아동만화 1000여 작품 작업

경력사항 중국 금룡상 해외 최우수작품상 수상



작가의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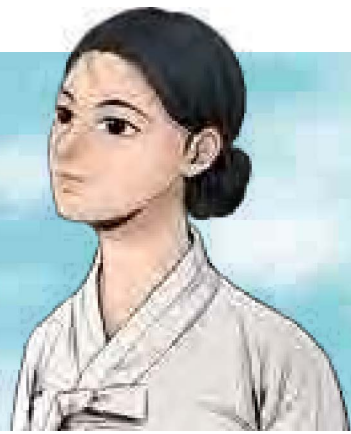
지키려는 저항 자체가 평화라고 생각을 해요

작품설명

위기에 강한 민족답게 독도의 위기 상황을 모든 국민의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파란하늘



강주룡 1901~1932
서훈 : 애족장(2007)

1931년 정달헌의 가르침으로 평양 적색노동조합 운동에 참여하였다. 평원고무공장 파업을 주도하여 을밀대 상에 올라가 단식을 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다 체포된 뒤 옥고를 치르다 병보석 출옥 직후 순국하였다.

작가

글·그림 서사야

주요작품 2018년 <점핑오버>(네이버 연재)

경력사항 2020년 제주 웹툰의 세계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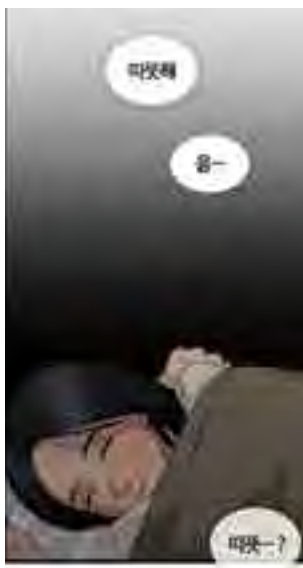


작가의 한마디

강주룡은 항일독립운동한 부부 독립운동가로 남편과 함께 짧은 생을 마감하지만 처절한 생존권 투쟁을 벌인 고공투쟁이 여성 노동자들의 동맹파업과 항일민족운동으로 연결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작품설명

한국 노동운동사 최초의 고공농성을 벌인 강주룡의 이야기를 다룬다



아임프롬조선



강혜원 1885~1982
서훈 : 애국장(1995)

191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다뉴바 지방에서 강원신 외 3명과 함께 신한부인회를 조직하였다. 5월 18일 대한여자애국단을 결성 총단장으로 선임되어 군자금을 모집을 주도하였다. 1920년 군자금 500달러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경유하여 임시정부에 송금하는 등 한인부인활동을 개척하였다.

작가

글·그림 **조은영**

주요작품 2009년 프레빌 한국사 전집 삽화
2010년 천재교육 학습간행물 만화 연재
2014년 <자유와 조직> 삽화 외 다수
2015년 만화<이매진> 작업(미완)
2017년 <유랑탐정 정약용>,
<비블리온> 표지 일러스트 외 다수

작가의 한마디

나라 밖에서 나라 없음을 더욱 절감했기에 더욱 사라져가는 조국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삶을 곳곳하게 시대를 살아내며 대한 독립을 위한 투쟁을 놓지 않았던 조선 여성들의 잊혀진 삶을 짧게나마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작품설명

세계 지형이 맹렬히 뒤바뀌던 제국주의
시대에 나라 잃은 국민으로,
침략국의 신민으로, 출처불명의 동양인으로
조선 밖의 삶을 살았던
한인 이민 1세대의 이야기입니다



피우정

원雨亭



김성숙 1898~1969
서훈 : 독립장(1982)

1919년 3.1운동을 주동하다가 징역 8월형을 받은 후 1923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의열단 선전부장, 조선민족연맹 선전부장, 임정 국무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한중 독립운동의 교두보 역할을 하였고, 1969년 병사하였다.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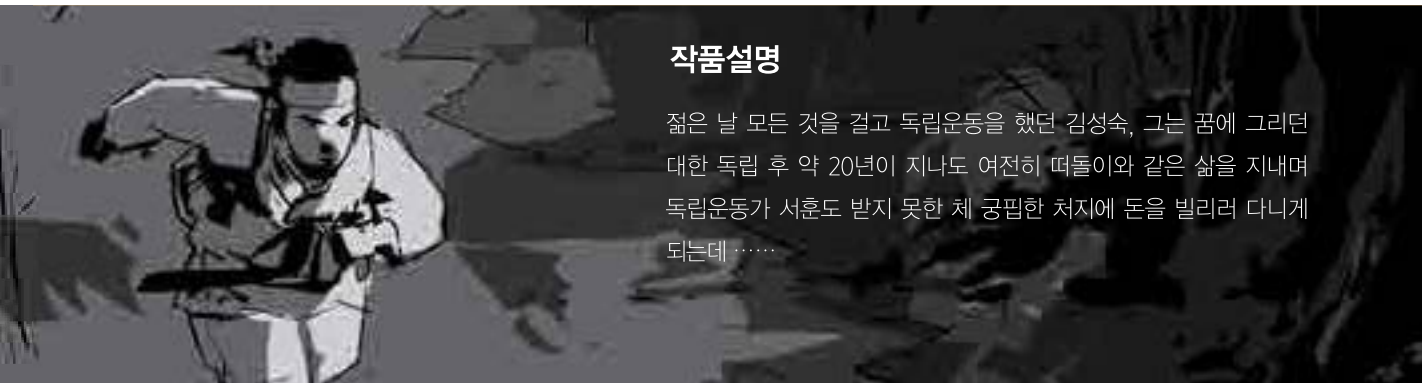
글·그림 **매미, 임광묵**

경력사항 1994년 <하이잭>으로 데뷔
1996년 <마치 영화처럼>
1998년 <교무의원(橋無醫院)>

작가의 한마디

작품에 우스갯소리로 한 “프로 감옥살이꾼” 이것이 김성숙 독립을 위한 헌신한 선생의 삶이었고, 독립이 되어도 궁핍한 삶과 명예마저 박탈당한 수많은 독립 운동가분들 중 한 분으로 그려내고자 하였습니다





작품설명

젊은 날 모든 것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김성숙, 그는 꿈에 그리던
대한 독립 후 약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떠돌이와 같은 삶을 지내며
독립운동가 서훈도 받지 못한 채 궁핍한 처지에 돈을 빌리러 다니게
되는데 ……



불타오르네



김염

1910~1983

서훈 : 미서훈

1910년 4월 7일 한성부에서 3남으로 태어나 자랐고, 아버지 김필순이 독립운동에 참가하여 수배를 당하자 1921년 만주 통화로 이주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하이, 텐진에서 어렵게 학생 생활을 하였으며, 이름을 김염(金焰)으로 바꾸었고, 1934년 상하이 영화잡지《전성》에서 영화황제를 뽑는 인기투표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배우, 가장 친구로 사귀고 싶은 배우, 가장 인기가 있는 배우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였다.

작가

글·그림 이은혜

경력사항 1986년 <가을소나타> 단행본 데뷔
1991년 만화잡지 《덩기》에 <Jump tree A+> 연재
1993년 만화잡지 《윙크》에 <BLUE> 연재
2002년 BLUEINCOM BLUE 웹진 연재
2010년 <그녀의 동화> Daum 웹툰 연재
2015년 <REBOOT BLUE> Naver, kakao 온라인 연재



작가의 한마디

김염은 비록 중국 국적으로 눈을 감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지만 영화라는 자신만의 무기로 독립운동을 한 영원한 한국인입니다

작품설명

1930년대 상해의 영화 황제로 등극한 김연은 중국 젊은이들이 가장 동경한 우상이었던 한국인 배우로 아버지 김필순, 사촌 누이 김마리아, 고모부 서병호, 고모 김순애, 고모부 김규식 등 독립운동가 집안의 정서는 그의 항일투쟁을 전개하는 정신적 뿌리가 되었다. 일본제국주의 영화를 단칼에 거절하며 모든 것을 잃기도 하지만 광복 후 조선인학교를 후원하는 등 애국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남의 땅 남의 국적으로 살아야 했던 통한의 시대 일제 강점기, 빛나는 재능을 가위질당하면서도 치열하게 싸웠던 동시대 문화예술인들과 김연의 동선을 연결하여 그의 민족정체성이 각성되는 과정을 그렸다.





나혜석 1896~1948

서훈 : 미서훈

한국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로, 근대적 여성 해방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자 이를 문학으로 표현한 문학가이기도 하다. 1919년 3·1 운동에 참가하여 5개월간의 옥고를 치렀다. 그녀는 삶과 작품을 통해 가부장적인 사회 제도에 도전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유를 추구했던 조선 근대 여성의 상징이 되었다

작가

글·그림 유승하

경력사항 1994년 신한은행 주최 새싹만화상 <휘파람> 대상 수상
1999~2004년 월간MBC여성시대 2쪽 만화
2009~2019년 한겨레 신문 생활만평 <유승하의 까치발>
2018년 <날마다 도서관을 상상해>
2020년 <1987 그날>



작가의 한마디

나혜석이 남긴 글과 말과 행동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시대를 뛰어넘어 후손들에게 쟁쟁한 울림을 남기는 이유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생각한 대로 길을 만들어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추진력은 나혜석이 세상이 바뀌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작품설명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확연히 다르던 시대, 여성으로서 재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시대를 앞서간 예술가 나혜석은 주위의 시선으로 순조롭지 못한 굴곡진 삶을 살았다. 더욱이 일제 만행이 한반도를 뒤덮은 36년의 식민지 시대의 여성으로 항일운동과는 또 다르게 한국 여성의 미래에 혁명적인 방향을 제시해준 나혜석의 이야기를 조명했다.



샤론의 장미



남궁억 1863~1939
서훈 : 독립장(1977)

1896년부터 사망 직전까지 전 생애를 오로지 구국, 사회계몽, 민족부활운동에 헌신한 언론인이자 교육자로 민족의식을 고취한 지도급 인사인 권동진, 오세창 등과 함께 대한협회를 창립한 후 평의원을 지냈다. 한편 무궁화 노래시를 지어 애국정신을 고취하였다.

작가

글·그림 정준규

경력사항 2000~2002년 영점프 데뷔 열렁뚱땅 하이파이브 총 4권
2002~2003년 화산, 초원, 바다, 시베리아에서 살아남기 총 4권
2008~2009년 전통문화백과 총 4권
2011년 경기도 바로알기 웹툰 공모전 (금상)
2020년 EBSTOON 공모전 (최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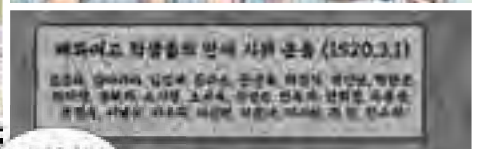


작가의 한마디

남궁억 선생은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저항하여 애국교육운동으로 우리나라 민족사를 발간하고, 국화인 무궁화를 보급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민족 정서 해방에 기여하셨습니다. 이처럼 독립운동가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족을 위해 헌신하셨음을 알 수 있지요

작품설명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애국가 후렴구에 들어가는 무궁화, 민족의 꽃 무궁화를 지키기 위해 한평생을 몸 바친 남궁억 선생, 강원도 산골에 무궁화동산을 만들고 무궁화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지만, 일제의 감시는 점점 조여오게 되는데 ……



구름을 뚫고 바다를 건너



노백린 1875~1926
서훈 : 대통령장(1962)

일본 게이오 의숙과 성성 학교를 거쳐, 육사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육군정령(대령) 관립무관학교장, 교육국장으로 후진 육성에 진력하였다. 1919년 기미독립운동 후 상해에 망명하여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군무총장이 되었다. 그 후 블라디보스톡으로 갔다가 1925년 상해에서 객사하였다.

작가

글·그림 **장우룡**

경력사항 2004년 <The Alamo> 출간, 개인전시회 개최
2007년~2010년 <그대에게> <바우트-원>
대한민국공군웹진, 공감 연재
2014년 <바우트-원> 3권 단행본 발행, 길찾기
2016년 EBS 연재웹툰 <물상객주> 시즌2 연재,
애니메이션 제작
2020년 <바우트-원> 재출간/ 레드리버



작가의 한마디

1945년 독립을 맞게 될 줄 몰랐고, 또 아무런 약속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체 끝없는 투쟁으로 이 시기를 살았던 독립운동가의
절망과 희망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작품설명

1920년, 잃어버린 조국 대한제국의 하늘을 되찾고자 임시정부의 국방부 장관 노백린은 미국에서 한인들과 함께 캘리포니아 윌로우즈에 한인 비행학교를 열었다. 수많은 한인 교포와 젊은이들은 각각 나라를 되찾기 위해 비행이라는 수단을 선택했고,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최초의 공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얻어낸 독립으로 맞게 된 노백린이 그리던 대한민국 공군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나의 이야기



동풍신 1904~1921

서훈 : 애국장(1991)

1919년 4월 15일 전일의 명천군 하가면 화대 장날에 독립만세운동 중 일본헌병들의 야만적인 발포로 부친 동민수가 순국한 소식을 전해 듣고 화대장터로 달려가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면사무소로 돌입하여 불을 지르고 면장 집에 방화하는 등 일제에 저항하다가 피체되어 무수한 고문을 받다가 옥중 순국하였다.

작가

글·그림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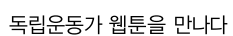
경력사항 2015년 단편 만화 <정원 단편선>
2016년 웹툰 <불성실한 관객> 코미코
2019년 스케치 <용재> 독립 문예지 베개
2018년 웹툰 <올해의 미숙> 피너툰
2019년 장편만화책 <올해의 미숙> 창비
2019년 단편만화 <보리의 가운데> 열모임, 딜리헨
2019년 단편만화 <뉴 서울> 네이버, 한국 만화 또다른 시선
2020년 단편만화책 <알프스 스키장> 빼악빼악박스
2020년 단편만화집 <삼점몇키로> 열모임



작가의 한마디

동풍신과 함께 서대문 감옥에 투옥됐던 재일동포 1세 가네모토 후쿠코의 증손녀인 아라카기 아야의 눈을 빌려 동풍신의 이야기를 펼친 것은 독립운동가분들의 한줄의 기록이라도 되살려 잊혀지지 않는 기록을 이어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함경북도에서 3·1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 동풍신의 이야기



반달



박자혜 1895~1943

서훈 : 애족장(1990)

1919년 3월 10일 조선총독부 부속병원의 조산원 및 간호원들을 동원하여 독립만세를 주도하다가 피체되어 투옥되었으나 당시 총독부의원장이 간호사들의 만세운동을 책임지고 유치소에 갇힌 간호사들의 신병을 인도하였다, 이후 중국으로 탈출하여 신채호를 만나 결혼하였고, 의열단 활동을 후방에서 지원하였다. 1924년 귀국하여 독립지사들간의 연락, 정보, 편의를 제공하다가, 지병으로 49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작가

글·그림 김소희

경력사항 1999년 서울문화사 밍크 공모전 본선작 당선
2002년 월간지 밍크에 〈스위트 레슨〉,
〈고냥고냥 고양이〉 연재
2004년 학산문화사에서 〈고양이와 새〉 1, 2권 발간
2018년 단행본 〈반달〉 출간
2019년 네이버 웹툰 《한국만화, 또 다른 시선》 시리즈에 단편
〈자리〉 게재



작가의 한마디

독립운동가의 아내로 또 한 명의 또다른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신 박자혜 선생을 보면서 '이런 분이셨기에 독립운동에 헌신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설명

3.1운동 때 간우회를 조직하여 일본경찰에게 감시대상이 된 박자혜 선생이 북경으로 떠나 그곳에서 만난 신채호 선생과 결혼 후 조국으로 돌아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산파원을 운영한다. 이 종로의 산파원을 중심으로 많은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청춘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든다.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으려는 열망과 일본의 핍박 사이에서도 사랑과 우정이 뜨겁게 피어난다. 박자혜 선생님은 오랜 계획 끝에 의열단원 나석주 동지와 '거사'를 향해 나아가는데, 일본경찰의 감시 속에서 과연 무사히 거사를 완수할 수 있을까 ……



의열의 시대



박차정 1910~1944
서훈 : 독립장(1995)

독립군을 양성하는 제1기 여자부 교관으로 활동하였으며, 1938년 10월에 조선의용대 부녀복무단장으로도 활동했다. 1939년 2월 곤륜산 전투에 참여하여 부상을 당하고, 1944년 5월 27일 중경에서 작고하였다.

작가

글·그림 김선영

경력사항 1996년 제1회 공모전 당선 데뷔 〈세 번째의 문〉 마인
1998년 〈마이 스위트가이〉, 〈당무당무 홍당무〉 밍크
2002년 〈살인이 난무하는 추리 교실〉 영 점프
2009년 〈두근두근 사춘기〉〈최강꿀찌전설〉
2015년 〈연애는 복잡미묘하게〉 탐툰
2016년 〈소금 뿌리는 남자〉 봄툰
2018년 〈불로의 인형〉 코미코



작가의 한마디

왜 그녀가 1995년에서야 건국공로훈장 독립장을 받으며 뒤늦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는지 문학도의 꿈을 꾸었던 한 소녀의 손에 어이하여 총과 메가폰이 쥐어지게 되었는지 34년 짧지만 의열적으로 살다 간 한 여인의 인생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작품설명

해외 무장투쟁조직이었던 조선의용대의 복무단장이자 약산 김원봉의 아내였던 박차정 의사는 경술국치의 해였던 1910년 부산 동래에서 태어나 두 오빠 박문희, 박문호와 함께 깨어있는 지식인이었다. 이 작품은 생 마지막 1944년까지 민족과 여성해방운동에 힘써왔던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파란 눈을 가진 독립운동가 베델



베델 1872~1909

서훈 : 대통령장(1950)

1904년 러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특파원으로 한국에 왔다가 같은 해 직접 [대한매일신보], [코리아 데일리 뉴스]를 창간하여 황무지 개간권을 반대하여 을사늑약의 부당함 폭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종 밀서 보도 등 항일 논설을 게재하여 일제를 규탄하였다. 이로 인해 3주 금고형(6개월 근신)과 350파운드 보증금의 판결을 받았다.

작가

글·그림 김경일

경력사항 2000년 서울문화사 신인만화공모전(빅점프) <변신>으로 당선
2007년 상상마당 웹툰 <괴기목욕탕> 연재
2015년 네이트 웹툰 <68단계> 연재
2015년 투믹스 <괴담패설> 연재
2018년 네이버시리즈 <괴기목욕탕 시즌2> 연재



작가의 한마디

외국인의 눈에도 일본의 조선침략이 얼마나 안타깝고 참혹했으면 조선을 위해 헌신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품설명

조선이라는 나라에 취재를 오게 된 기자 베델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매력을 느끼고 조선이 일본의 침략정책에 반기를 들고 조선을 돕기 위해 신문을 발간하고 활동하다 영일동맹을 맺은 일본의 압박으로 2번의 재판을 받게 되면서 극심한 건강 악화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





신익희 1894~1956

서훈 : 대한민국장(1962)

기미년 독립운동 당시 국내 동지들의 특파로서 상해에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내무차관, 내무총장 국무원 비서장, 법무총장, 외무, 문교, 내무부장, 중국국민당군 중장 등을 역임하며 무장독립투쟁을 준비하였다. 귀국 후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장 등을 역임하였고, 대통령 후보로 선거 유세 이동 중 열차 안에서 급서하였다.

작가

글·그림 장덕현

경력사항 2005년 천재교육, 부즈뎀에서 만화 및 삽화 작업
2010년 네이버 브랜드 웹툰 <꿈 날개를 달다> 작화
2012년 2012 서울 만화 스타우트 공모전 (해외부문)
푸른봄 (아주르 스프링) 당선
2014년 레진코믹스 아주르 스프링 연재
프랑스 만화 웹진- 델리툰에 아주르 스프링 연재
2016년 프랑스 'GUIDE DE PARIS' 페르 <라세즈>편 만화 제작



작가의 한마디

해공 신익희 선생과 같이 한국 근대사를 관철하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조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작품설명

해공 신익희의 삶은 가장 혼란스러웠던 한국 근대사의 정중앙을 꿰뚫는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1894년에서 대한제국, 일제강점기를 지나 대한민국 초대 정부를 거쳐 야당 대통령 후보에 이르기까지, 복잡했던 시기만큼이나 다양한 선택을 해야 했던, 때로는 들쭉 날아갈 때도 무지개 같은 해공 신익희의 이야기입니다



포와의 사진신부



심영신 1882~1975
서훈 : 애국장

1913년 하와이 호놀룰루 대한인부인회에 참여하여 1919년 대한구제회가 결성될 때 지방대표로 활동하였다. 1920년에는 상해 대한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제공하였으며, 1941년 4월 20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해외한족 대회의 대한부인구제회 대표로 참석, 해외에서 활발한 구국활동을 하였다.

작가

글·그림 **문흥미**

경력사항 1991년 《하이센스》〈이것이 사랑입니까〉 데뷔
1999년 만화잡지 ‘화이트’, ‘나인’, ‘이슈’ 등에
〈상처,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우리집〉,
〈THIS〉, 〈in 서울〉, 〈Love Piece Love Peace〉 등 연재
2016년 한국만화거장전 〈크리스마스의 트리〉,
〈아메리카노 국수〉
2017년 카카오페이지 〈나쁜 연애는 없다〉 연재



작가의 한마디

일제의 고국을 떠나 새로운 삶을 영위할 줄 알았던 사진신부들이 다시 고국을 위해 아끼고 아껴서 독립자금을 만들어 송금할 때 그 간절함과 애환을 이 작품을 그리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품설명

일제강점기 시대, 포와(하와이)로 이주해 간 한인 남성들은 결혼을 위해 조선에서 여자를 구하게 된다. 그 방법은 오직 서로의 사진 한 장만을 보고 결혼을 결정하는 것! 그 중 영신은 34세에 처녀도 아니고 8살짜리 아들까지 있다. 영신의 목표는 일본의 탄압을 피해 아들을 잘 키우는 것. 여행길에 만난 19세의 처녀 동희는 포와를 파라다이스로 꿈꾸고 있다.

절친한 사이가 된 두 사람이 도착한 포와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데.....

나라의 독립과 단단했던 두 사람의 우정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시대를 앞서갔던 두 여인들의 이야기

